

자율성, 아버지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유 안 진(서울대학교 교수) · 이 점 숙(서울대학교 강사) · 정 현 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율성, 아버지와 또래에 대한 애착, 탄력성 및 우울이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청소년의 연령, 성별, 자율성, 아버지와 또래에 대한 애착 및 탄력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013명(중학생 1002명, 고등학생 101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이원 변량 분석(two-way ANOVA), t 검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율성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부애착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애착이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애착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애착이 높았다. 셋째, 청소년의 탄력성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탄력성이 높았다. 넷째, 청소년의 우울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우울을 경험했다. 또한 우울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도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을 경험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했다. 다섯째,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탄력성, 부애착, 연령,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즉, 탄력적이지 못할수록, 부애착을 적게 경험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을 적게 경험할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다. 또한 탄력성, 부애착, 연령,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총 45%로 나타났고, 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자율성, 아버지와 또래에 대한 애착, 탄력성 및 우울에 차이가 있음을, 또한 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